



오지 여행을 다녀와서

김현수/목사, 들꽃피는 마을 대표

들꽃피는 학교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흘간의 도보여행을 하고 있다. 교사와 아이들 마흔두명이 지난 8월 6일 안산을 떠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오지를 밟았다. 함께 걷고 또 걸으면서 더불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보여행을 통하여 약해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었다.

8월 6일 | 도보여행을 앞둔 긴장감을 롯데월드에서 가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풀고 도보여행을 출발하는 황성군 둔내면에 있는 현천교회에 도착하였다.

8월 7일 | 드디어 본격적인 도보여행의 첫날이다. 현천교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청일면 감천리를 지나 청일초등학교까지 27km를 걸었다.

8월 8일 | 청일초등학교에서 서석을 지난 생곡리까지 26km를 걸으면서, 본격적으로 엉덩이에 따미가 나고 발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두들 힘들어했다.

8월 9일 | 생곡리 계곡에서 울전과 문암리 계곡을 지나 내린천 상류인 살둔산장까지 30여km를 걸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걷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몸을 느낄 수 있었다.

8월 10일 | 오늘은 걷는 대신 살둔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레프팅을 즐겼다. 아이들이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지 학교를 이곳으로 옮겨오면 좋겠다고 한다.

8월 11일 | 오늘은 강행군이다. 살둔에서 출발하여 강원도에서도 깊은 오지인 아침가리 계곡을 통과하여 방동약수가 있는 방동리까지 걸었다. 쉬고 난

다음날이라 오전에는 힘들었지만 오후부터는 걷는데 몸이 익숙해졌다.

8월 12일 | 방동리에서 점봉산 등산로 입구인 살피산장까지 24km를 걸었다. 비가 내려 비를 맞으면서 걸었지만 산장에 오후 3시 30분쯤 도착하여 낮잠을 잘 수 있었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렸다.

8월 13일 | 점봉산을 넘어 오색약수터까지 10km 산길을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험한 산길에다 비가 내려 무척이나 위험스런 코스였다. 남자아이들이 의협심을 마음껏 발휘한 날이었다. 2시간이면 통과하리라 예상했던 것이 5시간이나 걸렸다. 아이들이 항의를 단단히 하리라 예상하였는데 저녁에 요리경연대회를 하면서 긴장되고 원망하던 마음들이 녹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8월 14일 | 도보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설악산을 넘는 날이다. 모두가 긴장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는 일이었다. 대청봉에 올라 아이들은 안개가 끼어 주변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함성을 지르고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대청봉에서 일행을 설악으로 내려보내고 오색으로 다시 내려와 안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함께 하는 고생'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발이 부르토고 눈물을 흘리고 탈진을 하고 죽음의 공포를 겪었지만 함께 더불어 한 고생길이었기에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몽클한 뜨거움을 나눌 수 있었다. 혼자서 고생을 하다보면 사람이 망가지기 쉽다. 고생길은 함께 가야한다. 고생길을 함께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기쁨도 알 수 있다. **PPFK**

